

우·리·의·요·구

- 12·12쿠테타와 5·18민중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탈영병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
- 군내 의문사, 조직사건, 녹화 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
- 전경해체와 전경대 설치법 폐지
- 양심선언 군인, 전경 구속자 석방과 부당한 수배조치 해제

농성투쟁중인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일동

• 농성장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 T E L : 764-0203, 744-3717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 개혁을 촉구한다

-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농성투쟁 자료집 -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일동

윤 석 양 후 원 사 업 회
 양심선언 군인·전경 구속, 수배자 가족 모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 개혁을 촉구한다

-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농성투쟁 자료집 -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사회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셋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다섯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여섯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곱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여덟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홉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열째,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일동
 윤석양 후원사업회
 양심선언 군인·전경 구속·수배자 가족모임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일동

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 제2호

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 제2호

공화국헌법 제1조 제1항 제2호

성명서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군 입대 영장을 받는 순간 야릇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인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이 최소한의 권리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 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라의 군대는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은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간의 군사정권 시기에 한국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학살하였으며, 이속에서 대다수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60만 병사들이 실질적인 군대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치군인들의 군대가 되어 병사들은 어느 장성의 머슴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이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은 민족의 군대로 군의 모습을 옹기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한국군이 지난날의 과오와 역사적 오명을 씻어내는 일은 바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사들이 누려야 할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옹기 행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수배중인 상황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 본연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7년간의 군인, 전경들의 양심선을 통해 이루어 온 민주화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투쟁을 지난 5월 25일 부터 기독교회관 KNCC 사무실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진정한 문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30여년 간의 군사통치, 그잔재를 청산하는 일과 다시는 이땅에 군사정권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국군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개혁은 문민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정 부패의 원천이었던 군사정권의 폐해를 과감히 청산하고 그속에서 군대의 실질적 주체인 대다수 병사들의 권익과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군사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혁을 수행한다고 하는 김영삼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농성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내용을 한데모아 자료집을 발간 합니다. 여기에는 양심선언으로 수배중인 군인·전경들의 조국사랑과 군대사랑의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만나길 기대 합니다.

1993년 6월 3일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일동

차 례

자료집을 발간하며

1. 성명서

- 1) 군의 올바른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3 ~ 7
- 2)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8 ~ 10
- 3) 60만 애국병사에게 드리는 글 11
- 4)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글 12 ~ 13
- 5) 김영삼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14
- 6)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개혁을 촉구한다 15 ~ 18

2. 양심선언문 모음

- 1) 임성호 (89. 2. 18) 19
- 2) 박석진 (91. 5. 4) 20
- 3) 이종수 (91. 5. 13) 21 ~ 22
- 4) 이동익 (91. 5. 24) 23 ~ 24
- 5) 고대성 (91. 8. 12) 25
- 6) 강태중 (92. 1. 15) 26
- 7) 조정희 (92. 9. 28) 27 ~ 29

3. 수배투쟁일지 - 오늘이 있기까지 (임성호) 29 ~ 32

4. 편지글 모음

- 1) 이 땅, 들뜬로 살아오신 어머님께 (이동익) 33 ~ 34
- 2)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재원) 35 ~ 37
- 3) 너희들을 농성을 보며 (박석분) 38 ~ 39

5. 군비리의 근원과 군민주화 (서영완) 40 ~ 41

6.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와 양심선언 군인, 전경의 수배투쟁 (연성흠) 43 ~ 47

7. 연도별 양심선언자 현황 48 ~ 58

8. 농성투쟁 상황일지 59

성명서

군의 올바른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양심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버리고, 비양심이 상식이 되어야 했던 암울한 시대에 군대와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 전경 수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군의 비민주성과 반민족성, 그리고 비양심적인 모습이 이제는 더이상 방치해 둘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느끼고 군의 실질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는 국군의 사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외세의 침입으로 부터 국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보호 유지하는 권력의 시너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4천만 국민의 민주에 대한 열망을 12.12쿠데타를 통해 짓밟고,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군이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전경으로 차출하여 불법적으로 시위진압에 배치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부모형제에게 최루탄과 곤봉으로 맞서는 정권의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반양심을 강요 했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가득 메웠던 군의 비리에 대한 각종보도는 우리 군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실감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군 비리가 12.12당시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신군부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군의 비민주성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 우리들의 양심선언은 이러한 군의 모순과 부정을 고발하고, 국민의 군대로의 복귀를 촉구했던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서 매도하듯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던 전두환, 이순자부부를 지켜주는 것이 국방 본연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노동구조 개선과 정당한 임금보장을 요구하는 노동형제들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는 것이, 또한 생계비도 나오지 않는 현실에 분

게하며 외국농산물 수입반대와 불공정한 농업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군화발을 들이대는 것이 국방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과 민족 우선을 강조하는 시대에 여전히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가슴팍에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 역시 국방의 의무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군과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국민의 군대로 올바르게 서기를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투쟁에 나선 댓가는 구속과 수배라는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된 수배생활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3. 군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과 군민주화의 실현은 문민정부의 과제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의 군사통치를 끝내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영삼대통령 스스로도 과거 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광주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바탕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단순히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왜곡과 굴절을 바로잡아나간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오늘의 문제로 받아안아 근본적인 치료를 행하는 진정한 문민개혁이 선행될 때 문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입니다.

군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군사통치가 행했던 시대에 군의 비민주성과 반양심, 반인권적인 모습은 사회의 민주화조차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위험요소였습니다. 그것은 군이 막대한 물리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의 군제를 가진 국가이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다른 어떤 집단이나 조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군의 민주개혁은 문민개혁의 첫걸음이자 그 완성일 것입니다.

우리 양심선언 군인 전경 일동은 나라사랑과 군대사랑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군의 개혁과 민주화를 호소합니다.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79년 12월 12일 집단탈영을 통해 총칼로 정권을 탈취했던 정치군인들이 다음해 광주에서 수천명의 민중을 학살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12.12사태를 군사쿠데타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듯이 실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과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정권을 찬탈한 행위는 분명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정권인 5.6공에서 군의 비민주성과 반민족성을 고발하며 정의로운 양심선언을 했던 우리만을 탈영병이라 매도하며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민중항쟁 또한 진정한 해결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으므로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 해결에 있다 하겠습니다.

정권유지의 방패막이었던 전투경찰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설법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래 전투경찰대는 1967년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나 본연의 임무보다는 군사정권의 사병조직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었으며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는 정권의 방패막이로서 시위진압에 불법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부모형제를 짓밟는 현실은 바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군부독재 정권의 표상이기에 김영삼 정부가 진정한 문민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차출하여 정권안보용으로 사용하는 전투경찰대를 마땅히 해체하고 그들을 국방본연의 임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역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도 시위진압에 불법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전경들을 전설법에 명시한 대로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산악이나, 섬, 해안 지방에 재배치 하고, 도시지역의 치안 업무는 경찰력을 확대하여 담당케 하는 일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군내 의문사와 조직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맞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5.6공시기에는 한해만 해도 천여명에 이르는 군인 전경들이 각종의 사고로 죽어 갔습니다. 군에 갔던 아들이 한줌의 가루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의 가슴은 마디마디 끊어지는 아픔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인규명도 없이 지금껏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문민정부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악용하여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했던 지난날의 폐해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녹화사업 전문부대의 해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수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청주대 자주대오」, 「안양지역 자주학생연맹」,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 등 기무사에 불법으로 연행되어 고문과 협박속에 조작된 조직사건 역시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실질적인 군 개혁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군경 민주화의 초석이 될 뿐만아니라 자식을 군에서 잃어버린 많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길 일 것입니다.

군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군비리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관련자 사법처리는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연이어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군사통치기의 군의 비민주성과 비리에 대한 기사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군 전체에 걸쳐 비리와 모순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군 부대 터 불하 거액뇌물 받아”(93.3.24일자 한겨레신문), “준장공정가 5천만원, 돈 주고 ‘별달기’... 군진급 비리”(93.4.24일자 동아일보), “국방부본부 사병 10% 배치과정 비리혐의”(93.4.31일자 한겨레신문) ...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사와 개혁조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 장성들의 진급과 관련한 뇌물수수등의 비리를 파헤치고 관련 장성들을 구속하였지만, 비리의 핵심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패군인의 대명사였던 장성이 사정단의 일원에 끼어있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돌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 역시 비리가 만연한데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점이나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구속했던 장성들 대부분을 기소유예로 석방한 점 등은 김영삼정부가 말하는 군 개혁이 벌써부터 한계에 봉착한것은 아닌가하는 의혹과 약간의 재조정을 통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협조와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불신과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12.12의 주역이었던 하나회 중심의 정치군인들이 5.6공을 거치는 동안 군의 제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군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상공개와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는 왜곡과 굴절로 점철된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군의 비민주성과 반민족성을 증폭시키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진상조사 및 12.12 쿠데타와 그 이후의 정치군인들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법적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광주항쟁 진압과정에 구조적으로 개입했던 미국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만이 우리의 군대가 외세의존적 이다 또는 정권안보용이라는 오명을 풀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 전경을 전원석방하고 9명의 수배자에 대한 부당한 수배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경의 정치적 중립과 진정한 국민의 군대, 통일조국을 위한 군대를 주장하며 군부독재와 맞섰습니다. 군사정권의 반양심을 향한 우리들의 양심이 정당한 평가는 못받을 지언정 어찌 죄인처럼 취급 되어 구속과 수배를 받아야 합니까? 역사는 항상 누가 올바른 길을 걸어 갔는가를 심판 합니다. 김영삼정부가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면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 전경을 석방하고 10명에 대한 부당한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의 민주화를 촉구했던 양심선언의 순수한 마음에서 군이 우리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사실에 깊은 아픔을 느끼고 뼈저린 반성의 자세로 군의 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영삼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요구를 받아들여 함께 군민주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한다면 우리 역시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국방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복귀할 것입니다.

1993년 5월 25일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일동

농성참가자 명단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 임성호 일경 태백경찰서 소속 307전경대 백담사근무 (원광대 2년휴학)
89년 2월 18일 KNCC에서 양심선언
- 박석진 일경 서울 제1기동대 1중대 (건국대 1년 휴학)
91년 5월 4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 이종수 일경 서울 제2기동대 63중대 (동국대 2년 휴학)
91년 5월 13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 이동익 일병 50사단 121연대 해안 5대대 (동국대 2년 휴학)
91년 5월 24일 한양대에서 양심선언
- 고대성 일병 11사단 9연대 4대대 (경원전문대 1년 휴학)
91년 8월 12일 경희대에서 양심선언
- 이재원 일경 천안경찰서 2610전경대 (청주대 2년 휴학)
91년 12월 1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 강태중 일경 정주경찰서 2308전경대 (외대 용인 2년 휴학)
92년 1월 15일 KNCC에서 양심선언
- 조정희 일병 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대 기동중대 (한남대 4년휴학)
92년 9월 28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수배중인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이 국민여러분께 드립니다

시대의 희생양으로, 국민의 군대로!!!

우리는 5.6공의 군사정권하에서 군의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맞서 구속과 수배를 무릅쓰고 양심선언을 하였던 군인, 전경 수배자들입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소수 비양심이 상식이 되어버린 치욕의 역사에 대해 올바른 사회와 양심적 삶을 지키고자 민주주의 파수꾼인 군인, 경찰이 군사정권의 안전핀으로 전략함을 목도할 수 없어 이의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농성투쟁을 통해 군대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과감히 개혁할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4천만 민중과 함께 할 것입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학살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한나라의 군대는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현대사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쿠데타와 학살을 통한 권력통치의 오욕으로 점철된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를 위시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의 연장선속에서 우리군은 권력의 시너로 전략하고 만 것입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이듬해인 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후 문민정부임을 표명하며 군사독재정권인 5.6공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수립된 문민정부임을 내세워 곳곳에 잔재로 남아있는 군사정권의 쓰레기를 사정의 무서운 칼날을 들이대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조치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도 군사정권에 의해 촉발된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양임을 자처하고 6.10민주항쟁의 주역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정당성과 정확한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5.6공과의 단절을 말할수 있겠습니까?

군은 정치적 탄압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병영안과 밖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이것도 모자라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군대에 강제징집되어 또 한번 사회와 격리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전력을 이유로 우리의 아들, 형제들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되돌아 왔으며 「혁명맹」, 「청주대 자주대오」, 「민족한남 활동가조직」,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등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조직 사건을 조작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우리의 자식, 친구들이 차디찬 지하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일 등은 시대의 아픔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정권 시절의 아픔과 고통을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명예회복과 배상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할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군비리 척결의 문제도 순전히 군장성 몇몇의 비리로 축소시키고 조기 수사종결과 구속취하로 모두를 석방한 것은 개혁의 열망으로 가득찬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발표했음에도 매서운 사정의 칼날은 간데없고 날빠진 칼만이 허공을 헤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혹과 일련의 개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김영삼정부가 과감한 개혁에 목표가 있다기 보다는 유희적인 제스처로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이를 통한 권력재편의 발빠른 행보로 확실한 통치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선언을 탈영으로만 규정한 현정부에게 강력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정법상으로는 탈영군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2.12쿠데타의 주역들과 빛고을 광주를 한의 도시로 만들어 버린 광주학살의 주모자들은 과연 실정법상의 탈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인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군사정권의 희생양으로, 그들은 군사정권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묻지않는 각기 다른 잣대를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형평성과 양심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감옥과 어둡고 힘든 거리에서 약속되지 않은 시간속을 헤메이고 있는 수배자 전원과 많은 양심수, 군인, 전경의 전원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12.12 쿠데타의 주역들과 광주항쟁의 원인제공자들에 대한 구속처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현재의 역사에 발딛고 서있는 4천만 민중앞에 거리낌없는 모습으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4천만 민중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당당하게 다시서는 민족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993년 5월 25일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일동

우리의 주장

우리는 진정한 문민개혁의 시작은 군사정권과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마지막 역시 군사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모든 모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5.6공 군사독재정권 탄생의 모체인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중학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 과거 군사정권시절 양산되었던 군내 의문사와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군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군 비리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관련자 사법처리는 중단되지 말아야 합니다.
4.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정권유지를 할 수 없었던 군사정권시절의 대표적 국민탄압 기구 전경대와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5. 군의 민주화를 위하여 구속된 군, 경 양심수와 수배중인 양심선언자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 그리고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0만 애국병사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주장하며 양심선언 했던 군인, 전경 수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병영안에서 병사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병영밖의 병사로 우리자신을 규정하고 현 김영삼 정부에게 군과 경찰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는 국군의 사명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외세의 침략으로 부터 국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속에서 국민의 군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보호, 유지하는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더우기 군사정권하에서는 군이 국민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뼈아픈 오류를 반복해 왔습니다. 또한 정권의 준군사조직인 전투경찰제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차출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부모형제의 가슴에 최루탄을 쏘고 방패를 휘두르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러한 군의 잘못된 역사속에서 국민의 아들들인 애국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무게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획일적, 상명하복적 구조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자주성이 말살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선언은 이렇듯 반 양심을 강요하는 군의 모습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의 군대로 올바르게 설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랜 군사통치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것이 단순히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것은 김영삼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듯이 과거 군사정권과의 단절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군사정권과의 단절은 먼저 군사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마땅한 조처들이 취해지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국 병사 여러분!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만한 조짐은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그 주동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의 개혁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체는 군대의 주인인 60만 병사여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몇몇 장성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되어야 할 개혁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의 명확한 단절과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4천만 국민과 60만 병사가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군대로 될 것을 열망하며 병영밖에서나마 60만 애국 병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1993. 6. 1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에서 농성투쟁중인
8인의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일동

기독교교회관에서 농성중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들이 백만청년학도께 드리는 글

백만의 애국청년학생 여러분!

먼저 전대협 6년동안의 빛나는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여 맞게된 한총련 제 1기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대협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 땅의 4천만 민중과 함께 조국의 통일과 해방의 큰 길을 향해 진군해나가는 더욱 더 굳건한 동지로 설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반민중과 반민족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군의 과거와 현재를 목도하고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양심선언 군인, 전경수배자들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군대는 침략적 외세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는 민중들의 농축된 힘이며, 따라서 민중에게는 가장 친근한 벗이자 믿음직한 동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게는 1948년 4.3제주민중학살과 6.25당시 거창양민학살에서부터 이제 민주항쟁으로 규정된 80년 5월의 광주에 이르기까지의 군의 역사는 민중의 믿음직한 벗으로서의 역사이기는 커녕 반민중과 반민족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1970년말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제정으로 만들어진 전경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젊은이들을 강제 차출하여 군사정권의 안위를 위해 민중탄압의 주요한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청년들이 자신의 부모형제인 민중앞에 적으로 서야하는 강요당한 배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선언은 이러한 군의 제 모순에 더이상 동조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자 거대한 구조속에서 미약한 개인으로서 할수 있었던 저항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실로 33년간의 기나긴 군사정권의 시대가 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5.6공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여러가지 개혁의 조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 정권의 개혁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외쳤던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전경해체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고위장성 몇 명을 바꾼다고 해서 군의 제 모순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개혁을 바라고 수년간의 수배생활의 어려움을 감내했던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 개혁의 첫 걸음은 과거 군이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때 만이 두번다시 군이 민중의 적으로 서게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6공시절 군내에서 발생하였던 의문사와 조직사건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럴때에야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국민대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할 군인을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사병으로 전락시켜 자식과 부모가 서로 적이 되도록 하는 세기말적 악법인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전설법은 이전의 군사정권이 민중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않으면 정권유지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현 정권이 진정한 문민정부임을 주장한다면 전설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경의 정치적 중립과 민족의 군대, 민중의 군대를 주장하며 구속되고 수배된 애국군경들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주장합니다. 김영삼대통령 자신이 말했듯이 현정권이 그간의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면 군의 민주화를 외쳤던 우리의 양심이 정당한 평가는 못받을지언정 어찌 죄인취급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군사부에서 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진의를 판별할수 있는 주요한 잣대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의 전면적 실행을 촉구하며 기독교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이 우리현대사에 남긴 왜곡과 굴절을 뼈아프게 자성하며 이 오욕의 군 역사를 씻기 위해 부단히 투쟁할 것을 애국적 백만청년학도 앞에 결의합니다.

끝없는 동지적 신뢰와 사랑을 드리며...

통일 해방진군 49년 5월 25일
양심선언 군인전경수배자일동

임성호 일경 태백경찰서 소속 307전경대 백담사근무 (원광대 2년휴학)

89년 2월 18일 KNCC에서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 제1기동대 1중대 (건국대 1년 휴학)

91년 5월 4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이종수 일경 서울 제2기동대 63중대 (동국대 2년 휴학)

91년 5월 13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이동익 일병 50사단 121연대 해안 5대대 (동국대 2년 휴학)

91년 5월 24일 한양대에서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11사단 9연대 4대대 (경원전문대 1년 휴학)

91년 8월 12일 경희대에서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 천안경찰서 2610전경대 (청주대 2년 휴학)

91년 12월 1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강태중 일경 정주경찰서 2308전경대 (외대 용인 2년 휴학)

92년 1월 15일 KNCC에서 양심선언

조정희 일병 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대 기동중대 (한남대 4년휴학)

92년 9월 28일 연세대에서 양심선언

김영삼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진짜국군 - 우리아들들을 생각하며)

느닷없는 아들의 농성 소식에 맨발로 뛰어가보았습니다. 군 복무 중 양심선언을 하고 길게는 4년 3개월부터 1년이 넘도록 수배를 받아온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동안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채 지내오다가 무사한 아들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아들들의 양심선언 소식을 듣고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분명히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양심선언을 하고 간히고 쫓기는 몸이 되어야 했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나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간 우리 아들들은 엉뚱하게도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보호하는 일에,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를 진압하며 동료를 체포하는 일에, 그리하여 결국 강경대 치사사건처럼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게 되는 일에, 아버지와 같은 고향 어른들의 쌀수매요구를 막아서는 일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군과 군대는 그간 소수 권력지향적인 군부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두려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군인, 장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는 그동안 독재정권이 유지되고 창출되는 일에 동원되고 수단화 된 우리 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탈영병이 격계될 어려움을 각오하면서도 양심선언을 하고 구속되거나 지금까지 수배상태로 거리를 헤맨 것은 결국 군의 민주화와 명예회복을 위한 정당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의 비민주적인 엄청나고 기막힌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양심선언이라는 의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병사로 당당히 군 복무를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는 군의 통치로 인해 생겨난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천명해왔고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되돌아보면 이 땅의 민주화는 군화발에 짓밟혀온 과정이었습니다. 32년 전 5.16이 그러했고 80년 광주를 짓밟은 5.17이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차 "나 역시 군사독재정권의 큰 피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12사태나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우리 아이들의 요구는 결국 문민정부가 군사정권이었던 5.6공과 정확히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군 비리에 대한, 특히 12.12사태, 5.18에 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주시시오. 12.12 때 근무이탈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그리고 광주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 민주적 역할을 주장했던 윤석양군 등 구속군인과 전경을 석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농성중인 수배군인과 전경들에 대해서도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의 초석으로 확인된 이 마당에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진짜 국군들이기를 원했었는가를 다시 확인하며 대통령께 이들이 주장했던 군 민주화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들의 양심선언과 탈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군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1993. 5. 22. 군인 전경 양심선언 구속, 수배자 가족일동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 민주개혁을 촉구한다!!



「양심선언」수배자 가족상봉 6共하에서 軍민주화운동과 관련, 양심선언을 해 수배중인 전경 - 군인 등 8명이 5월 25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랜만에 가족들과 상봉했다. <李尙勳 기자>

농성투쟁중인 양심선언 군경 수배자 일동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얼마전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화해하며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슬그머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12와 5.18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국민들의 요구이며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지휘관도 없이 쿠데타가 준비되고 지휘관 없이 발포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군대는 존재하지 않듯이 제 2의 12.12, 5.18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비로서 용서와 화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 전경을 전원 석방하고 수배자에 대한 부당한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선언은 이러한 군과 경찰의 반양심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에 더이상 복종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더불어 군경의 정치적 중립과 진정한 국민의 군대, 민주군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투쟁에 나선 댓가는 구속과 수배라는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소중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고된 수배생활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제 오랜 군사독재정권의 시대가 가고 문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현정권이 그간 지나온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우리의 행동은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 군인, 전경 구속자 6명의 석방과 9명에 대한 수배조치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해체! 전투경찰

쟁취! 군민주화

일년에 800여명이 죽는다는데...



허원근 일병의 경우, 부대측에서는 "허군이 총기를 오른쪽 가슴에 밀착, 왼쪽 엄지로 격발하여 총알이 간장 상단과 하단부를 뚫고 등쪽으로 관통하였으나, 당장 자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심장에 가까운 왼쪽 가슴에 총구를 다시 대고 오른쪽 엄지로 격발하여 탄환이 폐장 하단을 뚫고 겨드랑이 쪽으로 관통하였다. 그러나 역시 의식이 남아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쪽 눈썹에 밀착시키고 오른 손 엄지로 격발하였다."고 밝혔다.

과연 허일병 자신이 M16소총을 위치를 바꿔가며 세번이나 스스로 쓸수 있겠는가? 이것은 명백한 타살입니다.

군내 의문사 대표사례

성명	사건발생일지	직업	사건내용
김두황	83.6.18	군인 (고려대)	강제징집후 머리가 없는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
허원근	84.4.2	군인 (수산대)	오른쪽 왼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3발 맞고 사망
이이동	87.6.17	군인 (전남대)	시국문제 발언으로 중대장이 총으로 사살. 부대측 자살로 발표
남현진	91.2.3	군인 (외대)	입대 80일만에 소나무에 목을 매단채 변사체로 발견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내 의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전경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군에 오기 전까지 몇 해도 한명의 평범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단지 내 주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91년 6월 입대를 하고 두달만에 전경이 되었습니다. 학교주변에서 자주 보아왔고 근거도 없이 적대감을 가져왔던 전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경찰 제 1기 동대 본대의 대원으로서 많은 시위진압에 참가하면서 한 때는 학생이었고 현재는 전경이라는 이중성으로 많이도 괴로웠습니다. 나에게 동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을 미워할수도 없었고 더우기 학생을 목하는 고참과 내 죽병들도 전 목할수 없었습니다.

... 더이상 학생과 전경의 죽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더이상 방독면 속에서 우는 전경은 없어야 합니다...' -91년 5월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즈음하여 양심선언 했던 박석진 일경의 양심선언문 중에서-

평범한 한 대학생이 군에 입대하고 전경으로 차출되면서 겪어야 했던 고뇌의 한자락입니다. 현행 경무경찰대 설치법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는 조기의 군사훈련을 마친 훈련병 중에서 요구한 만큼의 병력을 전투경찰로 강제 임의차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 입대하게 되는 젊은이는 누구든지 전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야 하는 국방의 의무는 의무임과 동시에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이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차출하여 불법적인 시위진압에 내모는 것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와 권리 조항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은 과거 폭력적인 억압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던 군사정권시대의 산물이므로 이제 김영삼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임을 주장한다면 전투경찰대와 전투경찰대설치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 12.12 쿠데타와 5.18 민중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 탈영병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
- * 군내 의문사, 조직사건, 녹화사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당한 배상
- * 전경해체와 전경대 설치법 폐지
- * 양심선언 군인, 전경 구속자 석방과 부당한 수배조치 해제

백담사 - 아무런 대책없이 동료들을 흑사시키고 있는 그들

임 성 호

가) 사건개요: 백담사에서 근무중 89년 2월 18일 NCC 인권위에서 전두환, 이순자 즉각 구속, 전경대 설치법 준수, 군, 경의 정치적 중립화의 내용으로 양심선언후 4년 3개월째 수배생활중

나) 신상

소속 : 강원도경 제307전경대(태백경찰서)

계급 : 일경

학력 : 원광대 체육학과 3년 휴학

동서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한반도는 두둥강이 난 채 민족상잔의 비극이 우리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 열망인 통일을 현정권은 묵살하면서 영구히 분단을 고착화 시키려는 그들의 음모를 전투경찰로서 규탄하면서 감히 국민 앞에 선언합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를 부르짖는 국민적 봉기를 그들은 외면한 채 아직도 5공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비민주적 작태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폭로하고자 합니다.

5공과의 단절을 외치는 국민을 기만한 채 노정권은 전두환, 이순자를 백담사에서 비호하며 종전의 국민적 사과는 커녕 내설악의 정경에 심취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그들은 군의 의무라는 굴레를 이용하여 엄동설한에 아무런 대책없이 저희 동료들을 흑사시킴을 국민 앞에 마땅히 고발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순수한 동기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전경대의 설치목적인 대간첩 작전수행에 주력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개인적 경호와 특히 5공비리의 주역을 보호하는 경찰 악법에 과감히 군의 민주화와 전투경찰의 제도적 모순이 타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한 전두환, 이순자를 즉각 구속하라.
2. 전경대설치법 준수하고, 민족민주운동 탄압하는 백골단을 해체하라!
3. 군부독재 타도하여 군, 경의 중립화와 민주적 요소를 쟁취하자!

1989년 2월 18일 일경 임 성 호

고 강경대군의 어이없는 죽음 - 그를 누가 죽인 걸까요?

가) 신상

소속 : 서울경찰 제1기동대 1중대
 계급 : 일경(762기)
 학력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90학번)

나) 상황

* 91년 4월19일 4.19혁명 계승 시청집회때, 종각에서 파고다까지의 시위진압을 하면서 양심선언을 결심
 * 91년 5월4일 백골단 해체의 날, 범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장에서 양심선언

저는 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명의 평범한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도 아니었고 단지, 내 주위가 어떤 모습인가를 인식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6월 입대를 하고 두 달만에 전경이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보아왔고 근거도 없이 적대감을 가져왔던 전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경 직할 제1기동대 본대의 대원으로로서 많은 진압에 참가하면서 한 때는 대학생이었고 현재는 전경이라는 이중성으로 많이도 괴로웠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학생들을 미워할 수도 없었고 더우기 학생을 욕하는 고참과 내 졸병들도 전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젊은이고 함께 고생하는 동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함께 술마시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아파했던 젊은이들 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따위로 우리 젊은이들을 완전히 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얼마 전 강경대 군의 어이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누가 죽인 것일까요. 단지 전경만이 처벌되어야 할까요? 누가 그들을 백골단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폭력과 압박이 아니고는 지탱되지 못하는 이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아

박 석진

닐까요.

더이상의 학생과 전경의 죽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의 방독면 속에서 우는 전경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진압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고생했던 전경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이 우리의 적일까요? 정말 학생들이 던지는 화염병과 돌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고생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돌과 화염병을 막아야 합니까? 우린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왔습니다. 더이상 국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우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싸울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올바른을 위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또 죽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강경대 군이 죽었고 또, 분노으로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인 전경이 구속되어 자신의 인생에서 일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분노했지 않습니까? 전경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맞습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우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구속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일반 전경으로서 동료들에게 촉구합니다.

1. 시위 진압시 노동자, 학생, 시민들을 구타하지 맙시다.
2. 부대 내에서 하급자들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맙시다.
3. 제2, 제3의 양심선언으로 전경들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4. 학생과 전경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정권은 물러가라!

1991년 5월 4일

더이상 독재정권의 방패 이기를 거부하는 박 석진 일경

고 강경대 군의 죽음을 보면서 - 우리를 살인자로 만드는 시대

이 중수

가) 신상

- * 88년 동국대 사학과 입학
- * 90년 6월 26일 군 입대
- * // 8월 11일 전경 차출

나) 상황

: 91년 5월 12일 양심선언 결정

// 5월 13일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양심선언

저는 서울 제2기동대 63중대(602전경대) 3소대 일경 이중수 입니다. 1990년 6월 26일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서울 3기동대 7중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 18일 7중대가 의경 기동대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저는 63중대로 전출되어 지금까지 시위진압에 불법적으로 동원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원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재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이러한 시위진압은 항상 저를 괴롭혔고 더우기 이번 강경대군의 죽음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지금 구속된 백골단

들 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현재의 독재정권이 있는 한 언제고 전경과 학생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기에 이 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제가 양심선언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시경국장 등을 이번 강경대군 폭행살인사건의 살인고사죄로 고발합니다.

원래 전경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수행'이고 따라서 전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현 내무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경들을 살인자로 만들게 한 불법적인 시위진압을 명령한 자들이 당연히 먼저 구속 처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경대설치법 2조 3항에 근거하여 내무부 장관 등을 살인교사자의 혐의로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명령에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애매한 전경들만 구속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태우 정권의 교활한 정치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전경의 불법적인 시위진압동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들에게는 법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분명히 불법임을 시인했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경의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임무라고 할 때 전경을 시위진압에 내모는 것은 내 부모형제들을 간첩으로 상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전투경찰이라는 허울 속에 군 병력을 사회 속에 상주시켜 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수단으로써 삼고 있는 것은 준계엄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 동원은

- 강경대군 살인사건의 살인교사자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서울시경국장 등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전경의 불법적인 시위진압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
- 독재정권의 방패막이 전.의경, 백골단을 즉각 해체하라!
- 양심선언 정당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시위진압명령을 전.의경은 집단적으로 거부하자!
- 전경, 학생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태우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군 민주화 실현은 문민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양심선언 군·경 수배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경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로 되돌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투라든지, 진압이라는 군사용어는 이제 사라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당하게 전경으로 강제 차출되어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진압명령을 사주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나의 양심선언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양심선언은 저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7만 전.의경, 백골단 형제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애국 전.의경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이제는 저들의 노예임을 거부하고 우리의 짓밟힌 인권과 양심을 되찾아 민주화운동에 떳떳한 주인으로서 동참합시다.

양심선언자의 수배해제·명예제대 보장하라
윤석양 후원사업회

11월 5.18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는 애국군인의 이름으로... 이 동의

가) 사건개요 : 광주민중항쟁 11월을 맞아 군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의 잔재를 물려받은 비민주성, 시대착오적 이념학습의 강요, 인권유린의 실태를 보며 군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다수의 애국군인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91년 5월 24일,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중.

나) 신상

소속 : 50사단 해안 5대대 (90년 9월 13일)

계급 : 일병

학력 : 동국대 전산과 (88학번)

11월 5.18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는 애국군인의 이름으로...

5월, 눈이 부시게 따갑던 그 햇살을 짙은 피빛 살육의 현장으로 짓이겨 진지 어느덧 11월의 시간이 흘렀다.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5월의 빛고을! 바로 그날 M16 소총에 곤봉을 든 군인들의 피를 부르는 진압은 시작되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에 자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된 삶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들의 존재기반으로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우리의 형제, 가족, 친지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도록 강요하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적은 누구이고, 폭도들은 누구인가. 새삼 이런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다. 강산도 변한다면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의 군은 오히려 더욱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군은 폐쇄성, 정권과의 밀착, 힘의 상징, 정치적 악행,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존속하는 실정이다.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폐쇄성, 이것은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권리마저도 박탈하고 굴종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질은 폐쇄성으로 지금의 민주화운동을 폭도, 외부불순세력의 조종 따위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막아내기 위하여 합법의 탈을 가장하여 정치적인 주체인 민중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꽃다운 나이로 국민의 자주적 수호와 민중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막중한 의무로 군에 온 우리의 아들, 친구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위한 전경, 백골단으로 차출하여 정권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출된 전경, 백골단을 해체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위진압훈련인 충정훈련! 한손에는 총을, 또 한손에는 곤봉으로 11년 전 광주민중들의 꽃다운 넋을 짓이겨 버린 그런 만행을 지금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또다시 가할 피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 그들이 민중의 수호자요, 자주적 주권을 지키는 군이라 할 수 있는가?

현 경찰의 민중통제감시기구인 안기부와 같은 군의 감시통제기구 기무사(옛 보안사)를 설치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언론인의 백주테러, 학원사찰, 프락치 강요, 시위전력자들의 녹화사업, 군 내부의 감시통제, 군인들의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폭력적 수단으로 억압하고

있다.

군내부의 사고, 의문사로 1년에 천여명의 젊은이가 군에서 이유없이 죽어가고 있다. 시위전력자들의 의문사 조작, 고문, 폭행 등의 일들은 기무사에서 관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법적인 인권유린의 온상인 기무사의 즉각적 해체는 한 두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군은 식민지 일제의 유물인 구타, 기합, 가혹행위 등의 잔재를 온존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군은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엄청난 사고사를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암적 존재이다. 고참들의 횡포, 신체적 고통,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탈영 등의 실상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먹칠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반군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애국군인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 ⇒ 군의 민주화와 정치적 승리를 위해 과감히 싸워 나갑시다.
- ⇒ 시위진압 훈련인 충정훈련을 집단적으로 거부합시다.
- ⇒ 군내 의문사, 폭행사건들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합시다.
- ⇒ 대민사찰, 군인 통제기구 기무사를 해체 합시다.
- ⇒ 자기 의사와는 무관한 전경, 백골단 차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합시다.
- ⇒ 군 내부의 비민주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알려 냅시다.

「양심선언」수배자 가족상봉
 화운동과 관련, 양심선언을 해 수배중인 전경
 군인 8명이 25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
 독교포화회의회(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공개회의를 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랜만
 에 가족들과 상봉했다.
 <李尙勳기자>



지금의 전 민주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는 민주화 운동에 과거 광주와 같은 살육의 현장을 재현하기 위한 군의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애국군인들은 과감히 민주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애국군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형제, 친구들에게 겨누어져 있는 총부리를 되돌릴 때입니다. 민주적 군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애국군인들에게 민중의 생명과 자주권 수호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 애국군인들의 민주화 운동 동참은 노태우를 끝장내는 투쟁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 민주화된 해방 세상을 건설하는 마지막 투쟁이라는 것을.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보다는 떳떳한 죄인이 되기를...

고대성

가) 사건개요

육군 제11사단 9연대 4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으로 1991년 8월12일 범민족대회에서 남북간의 상호군축, 분단조국의 군인의 임무는 조국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기여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양심선언을 한 후 수배중

나)신상

소속 : 11사단 9연대 4대대

계급 : 일병

가족사항 : 편모, 3남 2녀중 막내

저는 1991년 2월 군대에 입대한 군인입니다.

군입대 전 외세에 예속된 독재정권의 군인이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지켜야 하는 국민과 국가는 외세와 독재정권, 독점재벌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민족해방과 민중해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려 했던 저에게 군사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4천만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에 군사독재정권과 군대가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군인이 되기 보다는 떳떳한 죄인(?)이기를 택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참교육운동, 자주적 평화 통일운동, 민중과 함께 하려는 종교운동 등 모든 민주화 양심세력을 좌경, 폭력, 혁명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와 87년 6월 민주항쟁, 91년 5월항쟁에서의 비상 출동 대기 명령에서 보여지듯이 군사독재정권의 군대는 분단이데올로기와 멸공의 대의명분(?) 앞에서 모든 민주화 운동을 압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의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하며 제가 수행할 민족통일은 멸공 복진통일에 불과합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조국에 이땅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그들의 청춘을 반민주, 반자주 통일에 바치고 있습니다. 분단조국의 군인으로서 제가 수행할 가장 큰 임무는 조국의 평화적 자주적 통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범민족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수행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의 축제인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애국군인으로서 저는 당당히 선언합니다.

1. 애국군인 양심선언 정당하다. 애국병사 탄압하는 군당국은 각성하라!
2. 조국통일 가로막는 반북이데올로기 주입교육, 정훈교육 폐지하라!
3. 조국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4. 남북 상호 감군으로 평화통일 앞당기자!

전경은 정권 안보의 희생양

강 태 중

가) 신상

소속 : 전북경찰청 제2308전경대 1소대
계급 : 일경
학력 : 외대 용인캠퍼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89학번)

나) 상황

1992년 1월 15일 KNCC 인권위에서 양심선언

전라북도 경찰청 예하 제12308 전경대 소속 일경 강태중은 전경대 해체와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전경대는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 군대에 온 젊은이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아 정권안보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강경대 열사의 죽음 앞에서 전경대의 시위진압 동원이 불법임을 자인하고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경병력을 점차 줄여 없앨 것을 약속했던 그들은 그럼에도 그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 그들이 만든 법조차 지킬 줄 모르는 비양심적 정권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제가 소속된 전경대의 길왕식씨 구타치사 사건에서 보여주듯 전경대내 구타와 기합이 비밀리에 또한 공공연히 자행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헌적인 시위진압에 전경들이 내몰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 제 고향이기도 한 정읍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고향어른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싸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키려 군입대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정당한 목숨을 최루탄과 곤봉으로 막으면서 2만여 전경들은 고통에 아파해야 합니다. 저는 당당히 전경대의 해체 없이는 2만여 전경들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고 또한 민주정부가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 1. 15 일경 강 태 중



굴욕적인 침묵을 거부하며...

조 정 희

가) 사건개요 : 조정희 일병은 「민족한남 활동가조직 사건」과 관련, 기무사에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 92년 9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이 사건이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 현재 수배중.

나) 신상

소속 : 제32사단 신병교육대
계 급: 일병
학력 : 한남대 국문과 87학번

지난 7월 25일 대전에서 발생한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은 군 내의 가혹행위와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허위임을 증언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8일 충남경찰청 발표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 소위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유예로 풀려난 육군 제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대 기동중대 소속 조정희 일병입니다.

본인은 조사기간 중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군 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와 신변위협에 따른 심적위축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선후배, 동료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안기부-경찰청의 음모임이 명백한 이상, 굴욕적인 침묵을 거부하고 양심선언의 길을 택합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나라의 정의를 구하고자 했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를 비롯,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의 용기가 오히려 탄압과 구속의 족쇄에 묶이고, 책임자는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통탄할 현실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저의 양심선언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고, 진상이 파헤쳐지는 시급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 중 군내 가혹행위와 신변위협의 심적부담으로 사실을 허위자백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7월 25일 오전 9시경 대대 ATT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여 물자정비를 하는 중 본인은 3명의 기무대 수사관에 의해 승용차로 기무부대로 연행되었고 27일 오전 10시경 까지 약 49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약 7일간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된 가운데 끊임없는 신변위협 속에서 그들이 제시하고 강요하는 조작내용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과 무근한 조작이며 안기부-기무사의 불법연행, 강제구금,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므로 구속, 수감된 관련자는 전원 석방되어야 하며 그 조작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합니다.

2. 조사내용이나 수사방식에서 최근의 간첩단 사건과 그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김낙중씨 사건과 조선노동당 남부지역 당 사건 또한 조작의 의혹을 질게 합니다.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사건은 진상을 규명하려는 학교, 동문, 가족들의 조작 증거제시와 반발에 부딪혀 조사내용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된 경찰청의 형식적 발표입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관련자는 조사과정에서 '조선노동당증 발급여부', '혈배식 거행', '김일성만세 플래카드 게시 여부' 등의 진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대중적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허위내용을 근거로 대규모 학원간첩 사건으로 확대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것은 불법연행, 강제구금, 밀실수사로 일관하는 안기부—기무사의 전횡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정권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해 왔습니다.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사건 역시 이같은 정치적 술수인 것입니다. 안기부—기무사의 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국민감시, 탄압기구인 안기부,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 선거에서 군내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의 양심선언에도 밝혀졌듯이 집권을 연장하려는 민자당의 행각은 시, 군, 구에서 말단 행정조직 공무원들까지 수족처럼 움직이려는 대대적인 권력개입, 부정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제가 소속한 대대에서도 3.24총선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부대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윤석양 이병,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양심선언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2년 전 보안사의 대민 정치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군 부재자 투표부정을 밝혔던 이지문 중위, 대규모 관권 선거의 실상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님 등 지금까지 47명에 달하는 양심선언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어둠의 실상을 밝혀 실질적인 개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댓가로 양심선언자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철창과 끝없는 수배입니다.

진정한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군,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윤석양 이병, 한준수 전 연기군수 등 구속된 모든 양심선언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수배자는 수배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의로운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뒤따라야 합니다.

본인은 군대는 더이상 인권유린의 사각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하루아침에 직장 가정에서 끌려와 이적단체의 조직원으로 둔갑당한 채 수감되어 있는 13명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본인의 양심선언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구속 전원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인해 가슴에 피멍이 든 구속자의 부모님들과 저의 부모님께 양심을 지키지 못한 데 사죄를 드리며 이 사건은 반드시 그 진위가 밝혀지리라 믿고 용기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주장

1.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관련자는 전원 무죄석방하고 조작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2. 간첩단 조작, 정치 개입하는 국민감시 탄압기구 안기부,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3. 군의 민주화, 공정선거,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4. 윤석양 이병, 한준수 전 연기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선언자는 즉각 석방되고 수배해제 되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배투쟁 -

오늘이 있기까지...

임성호

한치의 타협도 없이 살아 남아야 한다.

이것은 4년 4개월 동안 나의 심장에 아로새겨진 수배생활의 원칙이었다. 암울한 조국 짓밟힌 식민의 땅에서 돌아나는 청맥이 고자 했으며 이러한 원칙을 맹세로 지금껏 나의 힘든 수배생활은 시작된다. 살아남아서 알리는 것만이 수많은 동지들이 힘을 얻고 군사정권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이 언젠가는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89년 2월 18일 KNCC에서 양심선언한 후 현재 농성투쟁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분노 혹은 설레임 또한 나의 원칙에 대한 검증을 확인한 것이며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쟁취해왔던 것이다.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와 자기 민족의 운명 또한 책임지고 개척해가듯 승고한 민족적 과업을 앞당기

그리고 기무사—안기부의 계속적 조작이 진행되어지고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조작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밝혀지는 시점에서 자진복귀 할 것입니다.

는 통일 조국의 군대를 만들고자 결의한 마당에 활동의 원칙과 신변 보위투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다.

격랑의 밤을 지새우면서도 동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사람중심의 사상과 어머니 조직속에 녹아나는 나의 버팀목이었으며 운동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나를 단련시켜내는 중심 내용이었다.

벌써 4년이 넘는 오랜 수배투쟁에서 존재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어리석기 짝이 없던 짧은 과거를 얘기해 볼까 한다.

온통 빛나는 대열속에 국토방위의 자랑스러움으로 어깨가 으쓱해야 할 나에게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고뇌와 시련을 안겨주었던 것은 광주학살 5공비리의 주범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지키는 백담사 경호근무 배치였다.

누가보아도 백담사 경호근무는 분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볼수 없을 것

이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질곡의 시
기였던 5공의 권좌에 군림하며 국민의 탄
압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 온 국민으로부
터 구속 처벌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전두
환, 이순자 부부를 지키는 것이 국방의 의
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과연 국
방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
를 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나의 신
성한 국방의 의무를 침해한자가 누구며 법
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5, 6
공은 쌍둥이 정권으로써 실은 노태우가 전
두환을 비호했다는 사실은 모르는이가 없
을 정도였던 마당에

어떻게 반민주의 표상인 전두환을 지키는
나의 국방의 의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
겠는가?

그곳의 근무는 죽음보다 더 치욕스런 양
심에 대한 반양심의 대립이었다.
양심선언 이후 나에게 다가올 엄청난 고통
에 대해서 모른바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겪어야 했던 심적 갈등은 양심의 승리로
귀결 되었다. 또한 주위에 나와같은 처지
와 조건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동지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양심선언이후 나는 뜨겁게 맞이하는 전
경해체투쟁위원회 동지들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양승균 동지의 양심
선언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차지했던 군부
독재의 최후의 보루 식민군대를 향한 빛나
는 자주선언이었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민중들은 삶
의 주인으로 우뚝서고자 했으며 민주주의
와 조국통일의 민족적 과제 앞에 숭고한
역사를 다시금 다듬어가며 조심스런 출발
은 결국 6월 전민항쟁의 대투쟁을 피와 눈
물로써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결과 군대내
의 전근대적인 폭력과 억압 속에서 굴종과
노예적 근성에서 벗어나 당당한 이 땅의
주인으로 애국전경 양승균 동지는 독재의
표상의 껍데기를 벗기고 말았던 것이다.

민족해방투쟁의 대장정에서 함께 했던
학우들과 부모형제의 정당한 민주화의 요
구들, 노동형제, 농민형제의 정당한 요구
를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찍는 인간적 갈등
속에 양심의 승리를 확인하며 반독재 투쟁
의 기치를 내걸고 가시밭길의 수배생활을
택한 정의로운 애국전경들이 속출하게 되
면서 그 자랑스런 조직 전경해체투쟁위원회
(전해투)는 결성되었다. 또한 민주군대쟁
취투쟁위원회(민군투)도 88년 6.10 조국통
일 투쟁의 기점에서 군의 자주, 통일을 요

6공정신과연의식
기부사 해체회를 모으려 하며 양
심선언을 했다. 수배를 받고
있는 군인, 전경 8명이 그날만
연락조차 끊었던 가족들만을
나재희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차경호(25)의 아버지 차
창호(55)는 군사와와 정황의

정황의 아버지는 11시 서울 중문로
연락처 기부금회관 7층 연부
기부금회관의 연부 인건위원

사부살.

양심선언 수배자 가족 재회

한 학생시위를 진압하다 '화
재'의 정황의 아버지를 부른
로직없는 것은 국가안전회의
무를 보았으나 '화재'로 인해
해연세대의사 기자회견을
해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와
백관단 해체를 주장한 뒤 수배
선언을 시작했다.
차경호(25)는 군사와와 정황의

아 학생시위를 진압하다 '화
재'의 정황의 아버지를 부른
로직없는 것은 국가안전회의
무를 보았으나 '화재'로 인해
해연세대의사 기자회견을
해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와
백관단 해체를 주장한 뒤 수배
선언을 시작했다.
차경호(25)는 군사와와 정황의

아 학생시위를 진압하다 '화
재'의 정황의 아버지를 부른
로직없는 것은 국가안전회의
무를 보았으나 '화재'로 인해
해연세대의사 기자회견을
해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와
백관단 해체를 주장한 뒤 수배
선언을 시작했다.
차경호(25)는 군사와와 정황의

구했던 정광민 동지의 양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정광민, 박길남동지의 뛰어난
의지와 노력으로 활동하다 급기야 89년 6
월 어느날 정광민 동지의 검거로 계속적인
조직침탈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야수적인 적들의 악랄한 고문에도 굽힘없
이 오직 동지들을 보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맞선 처절한 수사투쟁은 우리변혁운동에
길이 남을 모범 그것이었다.

이러한 조직침탈 과정에서 민군투와 전
해투는 사실상 해체되고 나는 돈암동 방을
확인하러 갔다가 격투끝에 빠져 나올수 있
었다. 이것은 잠행기간에 있었던 가장 격
렬한 투쟁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나를 아마츄어식의 활동방식을 극
복하고 단련시켜주는 성과가 있었으며 조
직을 꾸려나가는 사람 중심에서 모든 사물
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새로운 사상적 관점
을 울곧게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나에게는 좀더 자주적인 주인공체로 서기
를 요구했으며 그러한 실천으로 노동의 참
다운 가치를 배우고 익히면서 노동자적 품
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일을 먼
저 술선수범 하는 머슴적 사고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구속과 수배에도 양심선언은 그
치지 않고 그 파고를 한층 높여내기 시작
했던 것이다. 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
의 양심선언은 정국을 강타했다. 국군 보
안사의 대국민 사찰은 국민을 분노와 충격
의 도가니로 몰고가기에 충분했으며 말로
만 들었던 소문이 이제는 사실로 다가오자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노태우 정권타도 투쟁
을 힘차게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91년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죽음은
그동안 전경들의 구조화된 폭력적 진압을
드러냈으며 이에따른 양심선언의 정당성은
국민들로 부터 많은 지지와 박수를 받았던
것이다.

14대 총선에서는 군부재자 부정 투표에
대한 이지문중위의 폭로가 있었다. 더 많
은 사병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사실로 확
인되자 군은 당황하게 되었다. 대선을 앞
둔 민주진영의 활로모색은 양심선언이라
는 계기를 통하여 준비하고 투쟁하게 되었
는데 이것은 6공화국의 44명이라는 양심선언
자들의 정의로운 출발에서부터 민족민주운
동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처럼 6
공화국에서의 양심선언자들이 한 역할은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지대한 역할을 하였
다고 본다. 대선 기간 동안 나의 활동은



30년간 군사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결국 진정한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실패하였지만 군사정권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인에게 대통령을 넘겨 줄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민주와 반민주, 애국과 매국의 엄혹한 정세를 인식하고 과학적인 대안으로 정면돌파함으로써 그간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애국군인에 대한 단죄의 전선에 서게 된 것도 수배생활에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애국군인 전경들의 자기 희생적 삶에 고무되어 결단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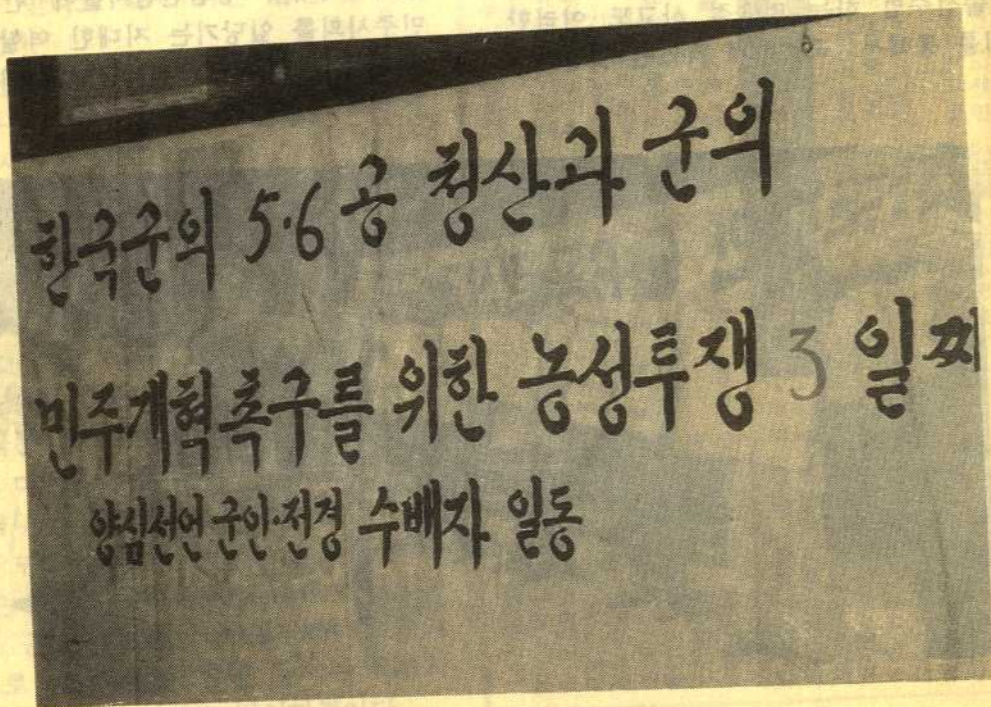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민주개혁을 위한 농성투쟁은 양심선언 7년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며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올바른 평가를 해냄으로써 이후 변화된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나의 삶과 운동을 일치시키고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발달시키는데 그 의의와 목표가 있듯이 서로 개별적인 수배생활 속에서도 동지들이 의기투

합할 수 있었다는 점은 바로 수배생활의 한치도 흐트러짐 없는 생활태도에서부터 기인한다. 이런 동지들의 운동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정말이지 아낌없는 박수를 치고 싶다. 농성투쟁에 모두가 합의하고 결정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고자 하는 양심선언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동지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애국적 단심을 잘 받아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며 통일단결의 드높은 결의를 모아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수배투쟁의 과정을 돌이켜보건데 아쉬움으로 남았던 지난 날의 오류와 한계를 뼈속까지 새기면서 이번투쟁의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내온다.

진정한 민주군대와 통일조국의 군대를 꿈꾸며 경찰과 기무사의 농성장 감시에도 끝까지 물러섬없는 투쟁을 할 것이며 진정한 민주군대와 통일조국의 군대를 꿈꾸며 이 차디찬 농성장에 오늘도 결의를 세우며 보초를 선다.



이땅, 등푸른 살아오신 어머니께

어머니!

꿈에도 그리워 불러보고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설친 잠 뒤척이며 눈물로 베개잇을 적 시곷 하였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며 굶어진 손마디를 생각하면 불효자식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대하는 날 어머니께 큰절을 드리고 대문 밖을 나서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고 하연없이 눈물을 짙어내시던 어머니.

장성한 아들의 대견스러움을 한껏 위안으로 삼으시고 뉘건강히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셨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소박하게 담고 계시던 바깥이 하루 아침에 내 자식이 탈영병이라는 낙인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오갈 데 없이 헤메이고 다닌다는 것을 아셨을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던 자식이 어느날 갑자기 문제 사병이니 복은 한 사상에 물들었으니 하는 말과 온갖 희유.협박에 시달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불효자식이라 말할 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으로 등어선 군대는 진정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먼족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군사정권의 시녀로, 하수인으로 강등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생각도, 올바른 행동도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서로간에 감시하고 복신을 조장하며 비인간적인 행동등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문제 사병도 구타.기함의 무서워서 또는 군대생활이 힘들어서 병영을 뛰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 수 없어 불의에 과감히 맞서 양심선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수배자라는 이름을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나 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말라시던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었고 곧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수배생활 3년여 동안 가끔씩 집에 소식을 전할 때 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한 목소리로 마주하셨던 어머니.

하지만 어렵고 힘든 수배자의 길을 가면서도 저는 하루도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으며 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대의 희생양으로 양산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눈물겹게 보고 싶은 어머니, 형제들을 뒤로한 채 눈보라치는 겨울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며칠씩 끼니를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어 할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부모 형제 아니 보다 더 큰 어머니 조국과 4천만 민족의 자랑스런 아들로 거듭 태어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당당히 어머니를 목놓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아이가 아닌 건강한 사회적 인간으로 보다 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보다 큰 민족을, 4천만 민족을 사랑합니다.

바로 나의 형제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광주민중항쟁 13년 5월 24일

약내 아들 동익 드림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재원 이경

높은 하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거리에 꽃들이 만발했고,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없이 편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는 건강하신지?

형님, 동생은 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항상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 아들 때문에 항상 젖은 얼굴로 계신 어머니!

벌써 제가 수배생활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제가 저를 돌아봐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어머니 앞에서 투정하고 재롱 부리던 제가 지금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어엿한 식민지 조국의 청년으로 자랐으니까요.

저를 개인의 이익만 알고 불의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닌 모두의 이익과 정의를 지키며 참된 길을 걸도록 길려주신 어머니께 진정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굳에 가던 날이 생각합니다.

눈물을 감추시며 제 손을 쥐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걸다 뒤돌아 보면 멀리서 손흔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흐릿한 모습.

“군대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 던 어머니의 말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듭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 그대 낀 부모 형제의 안전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제가 군입대 하는 날부터 저의 양심선언은 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4월 26일!!

제가 입대한 지 꼭 하루만에 강경대란 학생이 전경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온몸을 태우며 숨져 갔으며,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김귀정 누이가 죽어야 했습니다.

훈련소의 밤을 쳐루탄 터지는 소리와 보내야 했고 우연히 접한 동지들의 투쟁. 죽음을
저를 고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대배치를 받던 날. 희색웃의 전경들과 함께 진압버스를 타며, 저의 양심선언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적으로 한 진압훈련은 내가 왜 진압복. 방독면. 방석모를 쓰고 있는가
를 묻게 하였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리는 닭장차 안에서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타가 무서워서, 고생하기 싫어서 탈영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경은 왜 존재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 의해 규정된 65년의 병역,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

실. 지배자들은 자신의 사병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준군사 병력이 필요했고
이것이 바로 전경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경이 하고 있는 임무를 보면 더
욱 뚜렷히 보여집니다.

부모 형제를 무차별 구타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가
르막는 선봉, 이것이 바로 전경의 임무입니다.

저는 양심선언을 통해 ‘전경대 설치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구했다고 저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머님!

몇일 전이 아버지 낳이었습니다.

카네이션 꽃 한송이 달아 드리지 못했어도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일 있으면 두분 부모님을 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동안 불현한 것을 용서받고 두분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 드릴게요. 단순
히 꽃만 아닌 제 마음을 실어서요.

부모님!

부디 건강하세요.

- 어머니의 자랑스런 아들 드림 -

너희들의 농성을 보며

박 석 훈 (박석진 누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남들 다 하는 군대생활,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게 아닌가.....”

너희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탈영병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들의 머리 속에 떠오른 한결같은 생각은 이것이었다. 험한 세월,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탈영'이란 하늘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군대이니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무지렁이 부모들의 생각이었다. 그대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만 썩여왔던 게 아니냐.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나 위로하면서, 제 운명 제가 알아서 하겠지 체념하면서 등쳐잡 무거운 너희들 걱정을 눌러왔는데 오늘 너희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모여앉아 우리를 불러 세웠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탈영병이냐고?

권력의 도구노릇을 해온 군이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국편의 군대, 민주적 군대를 만들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는 너희들의 한한 얼굴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할 말을 잊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한꺼번에 싹판을 받는, 아니 세례를 당하는 느낌이었지. 너희들의 당당하고 진실된 주장은 백번 천번 옳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온 우리 못나 부모들이지만 어떤 게 옳은 건지 이제는 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너희들이 고맙다. 너희가 우리를 믿고, 또 국편들을 믿고 대다수의 힘없지만 애국적인 군인들을 믿고 이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많은 고생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사감들을 믿는 그 마음이 고맙다. 또 자랑스럽다. 진실은 통한다는 단순한 진리로 용기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의 젊음이 자랑스럽다. 그 명쾌한 젊음의 힘으로 이 땅의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콧날이 시큰해진다.

좋다. 기왕 시작한 일, 당당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혼신을 다해 너희들의 주장을 세상에 펼쳐라. 하려면 확실히 해라. 우리 부모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도우마. 지금부터 너희들의 믿음과 젊음에 힘을 얻고 너희들의 주장을 다시 꺾꽂히 읽어보려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

지난 91년 5월 연세대에서 '백골단' 해체 등을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소속 부대들 이탈한 혐의로 수배중인 박석진(25·당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일경)씨가 아버지 박흥규(69)씨와 2년 만의 뜨거운 만남을 가졌다.

“그동안 이 분 혼자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무슨 고생했느냐. 그동안 쫓겨 다니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아버지 박씨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 연신 석진씨의 아원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양심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

금도 한 치의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어버이날 전화로만 안부를 전해야 하는 처지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수배생활중 가장 힘든 고

2·제11사단 9연대·일병)씨도 이날 1년10개월 만에 만난 어머니 박운순(55)씨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줄 몰랐다.

“명절이나 아들 생일 때면 아들을 기다리다 꼬박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는 박씨는 “이제는 떨어져서는 못산다.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라!”며 흐느껴 주위의 눈시울을 적셨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정부도 12·12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관련군인들은 전역조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겠다는 듯 부여잡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부모들의 눈물어린 장면이었다.

김도형 기자

동네방네

‘양심선언’ 의경·사병의 항변

풍이었다는 박씨는 어느 때는 돈이 모두 떨어져 열흘 동안 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워야 했고, 집에 안부전화를 걸 때도 수사기관의 도청이 두려워 공중전화만을 이용해야 했다고 그동안의 힘든 수배생활을 털어놓았다.

지난 91년 8월 부대들 이탈해 경회대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한 혐의로 수배된 고대성(2

군비리의 근원과 군민주화

서영완 (윤석양후원사업회 일꾼)

“군 부대 터 불하 거액되물 받아”(93.3.24일자 한겨레신문), “최우수기종 F-16 추락 충격”(93.4.10일자 조선일보), “준장공정가 5천만원, 돈주고 ‘별달기’... 군진급 비리”(93.4.24일자 동아일보), “국방본부 사병 10% 배치과정 비리혐의”(93.4.31일자 한겨레신문), “무기관리체계 전면실사”(93.5.2일자 동아일보), “하나회 회원 특별관리... 시효지나 처벌은 불가능”(93.5.11일자 동아일보) ...

신정부의 출범 이후, 연일 신문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기사는 각종 군비리에 관한 수사와 관련자의 구속 등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이다.

군 장교들의 평생의 소원인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5공과 6공시절에 번영을 구가하던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언제 자기에게 불뚝이 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막힌 체중이 내려가는 속 시원함을 느낀다는 탄성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난 세월 군부의 직접통치시절에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극심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군의 비민주성과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군은 초기부터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복무제도를 군제의 기본으로 삼았다. 징병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떨리는 1944년 일제 패망기의 일본 국왕 칙령으로 제정된 조선인 강제징병제 실시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해방 이후

일본군대 출신의 장교 집단이 미 군정에 의해 군의 기간세력으로 대거 동용되면서 식민지 군대의 내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권위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지휘방식이 한국군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고, 당시 만들어졌던 병역 관계법령과 각종의 군사용어가 한국군의 군제를 특성짓는 요소로 이어져 내려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몇번의 개정과정을 겪긴했지만 그 근간은 일본군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런던의 전략문제연구소가 펴낸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1990-1991)」지는 현재 한국군의 병력은 육군 61만, 해군 6만, 공군 4만, 총 71만명이며 여기에다 방위병 17만명, 전투경찰 8만을 더하면 총 96만명의 상비군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1년 이후 방위병제도의 폐지, 전투경찰 병력의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대략 70여만명의 병력이 반도 남단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국력의 정도에 비하여 이렇게 대병력을 유지하게 된 근거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부록B에서 미국측의 한국군 군수지원 능력에 따라 국군의 적정병력 수준으로 책정된 65만명이 기준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대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국민들은 과중한 방위세를 납부해야만 했고, 5.16 군사쿠데타, 12.12 속군 쿠데타 등 군부가 정치의 전면에서 나서게 된 배경에는 단일한 집행력과 분단이라는 현실을 악용한 극단적인 대북안보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굳게 결

합된 대병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급격히 비대해졌고 국가예산의 30%가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최대의 이익집단화 될 수 있었다. 또한 강제 복무라는 징병제의 기초 위에서 벌어진 갖가지 이권개입과 구조적 비리는 정치를 담당하고 정권창출의 역할까지도 해왔던 군사집권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주항쟁 당시 진압의 최선두에 섰던 장교들이 예외적으로 상당히 높은 장성 진급율을 보여 특혜의혹이 있다(93.5.18일자 한겨레신문)는 보도는 대단히 시사적인 예이다.

최근 김영삼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군 개혁과정에서 밝혀진 부정과 비리는 일본군대의 식민지적 잔재를 이어받은 데다가 대미 예속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러한 구조가 징병제라는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자기 지분을 확보받으려는 군부의 의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군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개혁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간주되었던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파헤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해군, 공군, 해병대 장성들의 진급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파헤치고 관련 장성들을 구속하였지만 비리의 핵심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패군인의 대명사였던 장군이 사정단의 일원에 끼어 있다는 풍문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점이나 최대의 군 조직인 육군 역시 비리가 만연한데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고 구속했던 장성들 대부분을 기소유예로 석방한 점 등은 김영삼 정부가 말하는 군 개혁이 벌써부터 한계에 봉착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약간의 재조정을 통해 정권유지에 필요한 협조와 장악력을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사장된 움직임은 현정권의 취약지대인 군에 대한 장악력 중대를 위한 것이고 TK군 맥을 친 김영삼 중심의 PK군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는 의혹을 앞서게 한다.

군의 민주화와 정치중립화, 민주 민족의 군대로서의 재탄생, 통일을 지향하는 군대로의 변화를 힘주어 외쳤던 양심선언 군인 전경들이 아직도 5명이 구속되어 있고, 9명이 수배의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병역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400여명의 출소 양심수가 애타게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정한 군의 개혁은 이들의 문제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해결방도를 마련하는 데서 출발하여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군사통치기의 유산인 반통일적 대북안보논리와 낭비성 많은 국방비의 운용, 이권이 개입된 각종 차세대 무기구입사업, 그리고 병역제도 자체를 화해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의 민주화와 국민의 군대로의 변모는 국방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방비 사용내역의 공개, 군기밀 보호법의 개정, 군병력 감축을 위한 지원병제의 도입 등은 실천의 내용으로 검토할 만한 것들이다.

진정한 개혁과 군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개혁의 주체로 설 때, 우리 병사들이 하나하나 군민주화의 염원을 안고 주체가되어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듯 개혁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요 우리자신인 것이다. 우리 국민은 6월항쟁의 신화를 창조했다. 지금의 일정정도의 개혁 분위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개혁과 민주화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도, 군이 국민의 군대로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인이 되어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실질적인 민주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에겐 국민이
있으니 두려울까
없소!



거짓말, 거짓말 만 해 ! 이긴 명령이다, 이중위!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와 양심선언 군인 . 전경의 수배투쟁

연성흠(윤석양후원사업회 간사, 양심선언 전경)

1. 문민시대의 군사개혁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의 개혁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30여년간의 군사통치하에서 정치군부에 의해 자행된 온갖 부정과 비리의 실체가 어느정도는 여론의 흐름을 따라 표면화되고 있다.

문민시대의 개혁이 과거의 군사통치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이의 핵심 내용은 역시 한국군의 민주화로 집약될 수 있다. 문민정부가 단순히 한사람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을 뜻하지 않는 것이라면 군사개혁은 그 내용적으로 문민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민주화를 향한 군사개혁의 내용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김영삼 정권의 개혁 조치가 허구인지 아닌지를 있는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김영삼 정권의

군 개혁조치를 보면 자신과 반대 급부에 놓여 있는 몇몇의 정치군인과 군부세력들을 속아내는 작업에 국한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용과 원칙이 견지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군사개혁은 또다른 정치군인의 양산과 그를 통한 김영삼 정권의 군대장악,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군사통치의 잔재를 끝장내는 군사개혁의 핵심 내용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로 그동안 정치군부가 자행해온 온갖 부정 비리와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일이다. 5.16과 12·12군사쿠데타 및 광주민중항쟁에서의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직도 군대의 요소요소

에 남아 있는 정치군인들에 대한 숙군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일은 문민정부의 제일의 과제라 하겠다.

둘째로 오랜 군사통치로 사회에 만연된 군사문화의 척결과 더불어 사회의 병영화 및 군에 의한 사회통제와 대국민 탄압등을 근절시키는 일이다. 교련교육의 철폐, 예비군의 복무기간 단축과 훈련의 축소, 민방의 제도 폐지, 그리고 군수사기관의 대국민 불법사찰과 전투경찰 제도의 폐지, 병역제도를 악용한 민주화운동 탄압의 중지 등등은 문민정부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개혁의 과제라 하겠다.

셋째로 정치군부가 대외적 종속관계에서 방치하거나 팔아먹었던 군사에서의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다. 작전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허구이며, 이는 단지 군인사에 대

한 권한만이 있을 뿐이다. 작전지휘권이 없는 한국군은 독자적인 군사전략이 없는 세계 유일의 군대라는 수치스러운 오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확립과 함께 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조약은 폐기되거나 평등한 위치에서 새롭게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넷째로 그동안 정치군인들이 정권 찬탈과 그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군대를 사병화함으로써 발생했던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수행에 대한 권리 침해를 근절시키고, 이에 대한 병사들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병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땅의 군대는 몇몇 직업군인, 별들의 군대가 아니며 대다수 병사들이 주인으로서야 하는 군대이다. 군대의 실질적인 주체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민주화만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개혁이라 할 수 있다.

2. 병사들의 생활 현실

이땅의 젊은이들은 '병역의 의무'에 의해 군에 입대한다. 그러나 한국군이 지니고 있는 예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속성상, 병역의 의무는 '외세의 침략세력에

맞서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정치군인들의 정권 찬탈이나 군사정권의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고도로 강제된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군대라는 특수집단속에서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오로지 정치군인들과 군사정권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획일적 통제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강요될 뿐이다. 그간의 군사정권하에서 군대가 병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력과 감시를 통한 제도적 통제구조 없이는 한시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병사들의 생활현실을 규정하는 제도적 통제구조는 주로 기무사의 정보사찰 기구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정신교육을 통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주입, 상명하복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구타 및 가혹행위와 무조건적인 복종속에서의 병사들에 대한 모든 권리의 박탈 등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군대의 논리속에서 병사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침해하는 결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80년에서 88년 초까지 군대내에서의 각종 군기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670명, 안전사고 사망자는 3723명, 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667명이며, 군기사고 사망자 중 구타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 자살자는 2254명이다. (한겨레 신문 88년 10월 17일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다 하여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그것도 전쟁도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1년에 1,000여명씩 죽어가는 곳이 군대이며 이들 중 은폐된 죽음이 있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자살율은 같은 연령층의 사회인 보다 무려 25배나 되는 데, 이는 설사 타살이나 사고사가 자살로 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내의 병사들의 생활현실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군에서의 강요된 정신교육은 군사문화라 불리는 권위주의적 인간형과 강압적 명령체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의 인간관계를 이 사회속에 확산시키기도 한다. 이는 군사통치하에서 정치군부에 의해 대국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획일적인 정신교육은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적 현실과 국제정세 등

의 여러부분에서 일방적인 정부의 입장만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군내부의 비민주적인 모습과 사회의 제반 구조적 모순을 정당화 시키고, 그속에서 병사들에 대한 이념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단급 부대마다 배치되어 있는 기무사는 서신검열, 일상적인 동향파악 등을 통해 병사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기무사는 군 일반 지휘계통에 의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며 병사들은 물론 장교들에게 까지도 무제한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기무사는 한걸음더 나아가 녹화사업, 군내 조직사건의 조작등 심도 있는 정치공작을 감행함으로써 민주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병사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속에서 병사들의 인권과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군대내의 열악한 인권현실과 병사들의 제반 권리들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무사에 의한 정치공작은 병사들을 불모로 한 가혹한 고문수사를 근거로하여 제반 사회운동 영역에 대한 탄압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대를 이틀 남겨둔 이창휘 상병에 대한 구속등으로 촉발된 지난 91년의 「서울 사회 과학연구소 사건」은 이를 잘말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이야기

하면 기무사는 6공화국에서 30여개의 조직사건을 조작, 120여명의 군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

폭압조직으로서의 기무사는 군내에서의 병사들에 대한 사찰 뿐만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속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활동가들과 관련한 입대 예정자들의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속에서 기무사는 입대 예정자들을 선별, 우선적으로 입대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 활동가들을 사회와 분리시킴으로써 해서 민주운동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입대한 그들에게는 정치보복적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6공식 강제징집 → 기무사의 정치보복적 탄압, 정치공작 → 각종 조직사건의 조작, 의문사"라는 공식을 창출하고 있다.

3. 양심선언 군인·전경의 수배투쟁

1) '양심선언 투쟁'의 의미

혹자에 의하면 "좌익 폭력혁명 세력들이 군대와 와해시킬 목적으로 군대와 전경내부에 침투하여 양심선언 등을 획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심선언에 대한 증상모략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왜곡된 주장 뿐만아니라 군인·전경의 양심선언에 대한 어설픈 이해도 양심선언 투쟁의 의미를 삭감시키고 있다. 그것은 양심선언을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고립적이고 자생적인 투쟁으로만 축소시켜 이해한다거나 병사들의 투쟁을 양심선언의 일 형태로만 등치시켜서 이해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병사대중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아들, 민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징집」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고 최루탄을 쏘아대야만 하는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지 80년 광주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양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지켜주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것이 아

니다.

따라서 양심선언은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병사들이 정치군인 등에 의해 침해받은 자신들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수행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군부에 대항하는 군민주화운동, 사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하나의 투쟁양식이다.

윤석양, 최홍기 이병, 그리고 이지문 중위의 경우와 같이 군대내에서의 프락치 공작과 녹화사업, 기무사에 의한 조직사건의 조작등 폐쇄된 군대조직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정비리와 병사들에 대한 반 인륜적인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는 양심선언.

이동군대의를 비롯한 장교 5인의 명예선언, 5.3동의대사건 직후의 황원진 수경을 비롯한 백골단 6인의 양심선언과 평민당사 농성투쟁, 그리고 91년 강경대 열사 사건 직후의 박석진, 이종수 일경, 이동익 일병등의 집중적인 양심선언 등과 같은 독재정권 하에서의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전면화 되는 시점에서 군을 이용한 민주화 운동 탄압을 반대하고 이를 일정 무력화시키는 양심선언 투쟁은 애국적 병사운동에 있어 양심선언이 지니는 중요한 의의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92년 3.24총선에서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은 군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병사들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이지문 중위 이후, 약 2,000여명의 병사들이 투쟁에 동참 했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병사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있는 동시에 군의 문제가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문제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의 수배투쟁

한국군의 역사적 현실에서 특정정권의 사병으로 기능하고 있는 군대라는 거대한 국가조직과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아들, 민족의 아들인 병사대중 사이의 모순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정치사상적 갈등, 양심적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는 병사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군부의 반민중적 행태가 극에 달했던 80년 광주에서의 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피살자인 민중들의 무장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학살 주범의 지휘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군대내에서도 큰 동요와 저항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6.25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병사운동의 새로운 모태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실은 광주 민중항쟁의 한 복판에서 한 병사가 일으킨 거사이다.

민중 학살의 현장에서 계엄군의 일원 이었던 전라도 출신의 김 병장이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발포하려고 하는 주위의 병사 5명을 사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김 병장의 반란은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서 표출된 한국사회 변혁의 문제와 이속에서의 군 민주화 및 병사들의 투쟁을 함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광주 민중항쟁은 군대가 민중의 편에 서는 일, 즉 군대가 지배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시키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군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병사들의 현실인식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유인물 제작과 배포를 감행했다”고 밝힌 최태식 상병은 소트(진실의 아들)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 82년 12월 검거되었는데 이 사건은 80년 이후 최초의 조직 사건으로서 병사운동의 맹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병사들의 투쟁은 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석양 후원사업회에서 집계한바에 의하면 87년도에서 92년도 까지 국가보안법등에 의한 군인 전경 구속자는 총 173명으로 87, 88년도에 각각 4, 5명이었던 것이 89년도에는 28명, 90년, 91년도에는 각각 46, 43명등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군수사당국이 밝힌 이들의 혐의 사실을 보면 반정부 낙서에서 부터 양심선언, 각종 조직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군대내의 조직사건으로는 「애국군인 편집부 사건」등 총 6개의 병사조직이 군 기무사(전 보안사)등에 의해 검거 또는 조작되었는데 이들은 소모임 운영, 군민주화를위한 학습토론회, 회보발간등의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의 비민주적 모습을 사회에 폭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인 전경들의 양심선언 투쟁이 87년 6월항쟁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균 상경(전경)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양심선언을 한 군인·전경은 총 43명으로 이중 9명이 수배중이며 또한 7명이 짧게는 1년 6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되어 있다.

초기의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은 이후 장기적인 수

배투쟁속에서 관련자들을 규합, 조직력을 확보하고 '한국군의 자주화와 민주화', '전투경찰, 기무사 등의 군 폭압기구 해체', '병사들의 권리회복' 등을 목표로 투쟁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88년 5월 「전경해체 투쟁위원회」와 89년 2월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가 결성되게 된다. 이러한 양심선언 수배자들의 조직적 투쟁은 89년 6월에서 90년에 이르는 보안사(현 기무사)와 치안본부(현 경찰청)의 제1차 검거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와해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초기 양심선언자들의 대거 구속은 오히려 군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양심선언 구속자 및 수배자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대책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군인 전경 구속, 수배자 가족모

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90년 10월 보안사(현 기무사)의 대국민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과 구속 수감되었던 초기 양심선언자들이 출소하게 되면서 서울의 「윤석양 후원사업회」와 부산의 「장재완 양영진 열사 추모사업회」가 결성되어 국민들과 함께하는 군민주화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경해체 투쟁위원회」와 「민주군대쟁취 투쟁위원회」의 실질적인 와해 이후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들은 한동안 개별적인 수배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91년 4, 5월의 강경대 열사 구타살해 사건 직후 집중된 군인 전경들의 양심선언은 제2세대 양심선언자들의 새로운 수배투쟁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4.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5일부터 그동안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를 받아 왔던 군인·전경 8명이 모여 '한국군의 5, 6공 청산과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30여년 간의 군사통치 잔재를 청산하고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나 양민학살,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의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돌리게 하는 부당한 명

령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군사개혁 없이는 진정한 문민시대, 문민정부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또한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군의 민주화와 더불어 그동안 정치군부와 정치군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동안 군사정권하에서 수배와 구속의 위협을 무릅쓰고 군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양심적인 청년 장교들과 애국적인 병사들에 대한 문민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년도별 양심선언 현황

- 93년 5월 현재 -

<87년도>

1. 양승균 (상경)

- 1) 일시 : 89년 7월 8일
- 2) 소속 : 경기도 이천경찰서 타격대
- 3) 양심선언 내용 : "독재에 고향"-전경해체, 경찰 민주화 촉구
- 4) 구속일 : 89년 7월
- 5) 적용법규 : 국가보안법, 전경대 설치법
- 6) 형량 : 징역 1년 6월, 상고기각
- 7) 수감지 : 진주교도소
- 8) 만기일 : 91년 4월 12일
- 9) 현재 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

<88년도>

2. 이병무 (수사계장)

- 1) 일시 : 88년 1월
- 2) 소속 : 충주경찰서 (경찰대 1기생)
- 3) 양심선언 내용 : "경찰 발전과 민주화를 위한 참회"

3. 연성흠 (일경)

- 1) 일시 : 88.1.28
- 2) 소속 : 서울시경 39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전경해체, 국민의 경찰촉구
- 4) 구속일 : 89.6
- 5)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6) 형량 : 징역 1년 6월
- 7) 수감지 : 진주교도소
- 8) 만기일 : 90.12.14
- 9) 현재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정책실장으로 활동중
- 10) 기타 : 감신대 3년 제적

4. 임기철

- 1) 일시 : 88.6.8
- 2) 소속 : 치.본 기동대
- 3) 양심선언 내용 : "대한민국 경찰대에 고향"-전설법 폐지, 전경해체

<88년도>

- 4) 만기일 : 89.4
- 5) 현재상황 : 출소후 직장생활

5. 정광민 (일병)

- 1) 일시 : 88.6.8
- 2) 소속 : 수방사 헌병단 31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광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통일군대로의 전환,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및 올림픽 공동개최 분단의 원흉 미국축출과 독재정권 타도
- 4) 구속일 : 89.6.3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근무지 이탈)
- 6) 형량 : 2심-징역4년
- 7) 수감지 : 원주교도소
- 8) 만기일 : 93.6
- 9) 현재상황 : 수감중
- 10) 기타 : 강릉대 독문과

6. 노재학 (상경)

- 1) 일시 : 88.6.24
- 2) 소속 : 서울시경 동대문 지구대8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촉구, 전경해체투쟁촉구
- 4) 구속일 : 89.6
- 5) 적용법규 : 국보법, 전설법
- 6) 형량 : 2심-징역1년 6월
- 7) 만기일 : 90.12.18
- 8) 현재상황 : 출소후 장재완 양영진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

7. 김상철 (일병)

- 1) 일시 : 88.11.18
- 2) 소속 : 공군 제1전투비행단
- 3) 양심선언 내용 : 군부대내 폭력및 비리척결
- 4) 구속일 : 89.6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 6) 형량 : 징역2년
- 7) 만기일 : 91.6.8
- 8) 현재상황 : 출소후 가사에 종사

<89년도>

8. 이동균 (대위) - 현재 윤석양후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9. 김종대 (중위) - 현재 인쇄출판사 경영(기무사의 감시로 어려움)

10. 이청록 (중위)

11. 박동석 (소위)

12. 권균경 (소위) ---자대 징계후 복무

1) 일시 : 89.1.5

2) 소속 : 30사단

3) 군 명예선언 내용 : 군의 반민주적. 반 민족적 행위 금지, 정치군인들의 반성 촉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국민의 군대로의 거듭남을 촉구

4) 구속일 : 89.1

5) 적용법규 : 군형법

6) 현재상황 : 자대징계후 만기전역 (이청록 중위, 박동석 권균경 소위) 이등병으로 강등 불명예제대 (이동균대위, 김종대 중위)

13. 박길남 (이병)

1) 일시 : 89.1.7.

2) 소속 : 35사단

3) 양심선언 내용 : 군내 살인적 구타및 가혹행위 금지

4) 구속일 : 89.6.8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군무이탈)

6) 형량 : 2심-징역 5년

7) 수감지 : 대전교도소

8) 만기일 : 94.6.24

9) 기타 : 부산대

14. 조규봉 (이경)

1) 일시 : 89.1.31

2) 소속 : 강원도경 원주경찰서 제2기동대

3) 양심선언 : 전씨부부 구속과 전경대 해체, 군경 민주화 촉구

4) 구속일 : 92. 7. 29

5) 적용법규 : 전경대설치법(군무지 이탈)

6) 수감지 : 원주교도소

7) 현재상황 : 92.10.16.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후 출소, 자대복무중

8)기타 : 충북대 연초학과 제적

15. 김광제 (이병)

1) 일시 : 89.2.27

2) 소속 : 경기도경 제2전경대 안산 경찰서

3) 양심선언 내용 : 전경대 해체와 경찰 민주화

4) 구속일 :

5) 적용법규 : 전설법

6) 형량 : 징역 2년6월 집유3년 석방

7) 현재상황 : 양심선언후 자대복귀. 자대징계후 다시 전경으로 복무하다 제대

16. 임성호 (일경)

1) 일시 : 89.2.8.

2) 소속 : 강원도경 태백경찰서 제2기동대

3) 양심선언 내용 : 전씨부부 구속 처벌, 전경대 해체, 백담사 경호군무 폐지

4) 현재상황 : 수배중(4년 3개월)

17. 유진태 (일경)

1) 일시 : 89.4.3

2) 소속 : 경기도경 기동2중대 3소대

3) 양심선언 내용 : 울산현대중공업 탄압을 거부, 전경대 해체와 민주화운동 탄압중지촉구

4) 구속일 : 89.7

5) 적용법규 : 전설법

6) 형량 : 징역2년6월. 집유3년 석방

7) 현재상황 : 제대후 성균관대 재학중

18. 서영완 (일병)

1) 일시 : 89.4.17

2) 소속 : 28사단 82연대

3) 양심선언 내용: 국보법, 집시법, 사회안전법 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화, 평화 통일 교육실시,

언론, 사상, 독서, 집필의 자유보장

4) 구속일 : 90.4.25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군무이탈)

6) 형량 : 징역3년, 사단장 선고 징역1년 6월

7) 만기일 : 91.11.2

8) 현재상황 : 출소후 윤석양후원사업회 조직부장으로 활동중

9) 기타 : 충남대 영문과 제적

19. 황원진 (수경)

1) 일시 : 89.5.8

2)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체포조 (백골단)

3) 양심선언 내용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민주화, 5공 정치권력형 간부척결, 동의대 참사 책임지고 내무장관, 부산 시경국장, 관할경찰서장 퇴진을 요구하고 평민당사에서 단식농성

- 4) 적용법규 : 전설법
- 5) 형량 : 징역1년 6월. 집행2년
- 6) 현재상황 : 석방제대후 윤석양후원사업회에서 활동중

20. 이상철 (수경): 위와 동일함. 현재 직장생활중

21. 정균한 (상경): 위와 동일함. 현재 서울대 농대 재학중

22. 유성호 (수경):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제대, 윤석양후원사업회에서 활동중, 외대 독어과 재학중

23. 손동권 (상경):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제대, 현재 경성대 재학중

24. 강동주 (상경): 위와 동일함. 자대징계후 제대, 현재 직장생활

25. 류범희 (이병)

- 1) 일시 : 89.5.12
- 2) 소속 : 32사단
- 3) 양심선언 내용 : 충정훈련 금지, 방위병제도폐지
- 4) 구속일 : 90.1
- 5) 적용법규 : 국보법, 군형법
- 6) 형량 : 징역1년
- 7) 수감지 : 원주교도소
- 8) 만기일 : 91.1.31
- 9) 현재상황 : 출소후 충남대 재학중

26. 이하일

- 1) 일시 : 89.6.2
- 2) 소속 : 광주동부경찰서
- 3) 양심선언내용 : 이철규열사의 사인규명 요구
- 4) 형량 : 자대징계후 잔여기간 복무
- 5) 현재상황 : 제대후 가사에 종사

27. 장문걸

- 1) 일시 : 89.6.13
- 2) 양심선언 내용 : 전투방위병 해체, 충정훈련. 단기사병. 기동타격대해체
구속된 양심선언 군인석방촉구, 전두환 구속처벌.
- 3) 현재상황 : 구속중

<90년도>

28. 정월모 (상경)

- 1) 일시 : 90.3.13
- 2) 소속 : 전남 611전경대
- 3) 양심선언내용 : 민자당해체, 구타근절, 전경본연의 업무충실을 위한 제
적 장치마련 촉구.
- 4) 구속 : 91.7.13.
- 5) 적용법규 : 전경대설치법
- 6) 형량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출소하여 잔여복무후 제대.
- 5) 현재상황 : 제대후 외대 독어과 3년재학중

29. 서준섭 (상병)

- 1) 일시 : 90.7.27
- 2) 소속 : 군수사령부 탄약사령부 제8탄약창 1탄약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국군조직법 폐기,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 철수. 평
화협정 체결촉구, 남북한 군사력 10만이하 감축등 촉구
- 4) 현재상황 : 양심선언후 자대 복귀하여 구속되어 육군교도소 수감중,
92.7월경 출소및 제대
- 5) 기타 : 울산대

30. 윤석양 (이병)

- 1) 일시 : 90.10.4
- 2) 소속 : 육군제3사단 22연대 8중대 3소대
- 3) 양심선언내용 : 국군보안사의 대국민사찰 폭로
- 4) 구속일 : 92.9.23.
- 5) 적용 법규 : 군무 이탈
- 6) 수감지 : 장호원 육군교도소
- 7) 기타 : 외국어대 노어과
- 8) 형량 : 2심-징역 2년

31. 이우형 (이경)

- 1) 일시 : 90.10.15
- 2) 소속 : 서울시경 제3기동대 7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보안사. 안기부. 치본 대공분실과 전경대. 백골단해체
- 4) 현재상황 : 수배중
- 5) 기타 : 추계예대

<91년도>

32. 최흥기 (이병)

- 1) 일시 : 91.4.15
- 2) 소속 : 2군지원사령부 5163부대 805독립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6공화국내의 녹화사업 폭로
- 4) 현재상황 : 구속 수감중
- 5) 기타 : 군산대

33. 최진국

- 1) 일시 : 91.5.
- 2) 양심선언내용 : 「애국군인 편집부사건」으로 수배중 양심선언
- 3) 현재상황 : 구속중

34. 박석진 (일경)

- 1) 일시 : 91.5.4
- 2) 소속 : 서울시경 제1기동대 1중대
- 3) 양심선언내용 : 전경. 백골단해체, 노정권퇴진, 시위진압금지, 내무반생활에서 구타. 가혹행위 금지와 전경들의 양심적행동 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2년 1개월)
- 5) 기타 : 건국대

35. 이종수 (일경)

- 1) 일시 : 91.5.13
- 2) 소속 : 서울시경 제2기동대 63중대 3소대
- 3) 양심선언내용 : 내무부장관. 치본장. 시경국장을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의 살인교사죄로 고발,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동원 중단 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2년 1개월)
- 5) 기타 : 동국대

36. 이동익 (이병)

- 1) 일시 : 91.5.24
- 2) 소속 : 육군50사단 121연대 해안5대대 124레이다기지
- 3) 양심선언내용 : 군내부의 각성과 애국군인의 민주군대 쟁취를위한 노력 촉구, 충청훈련 거부, 기무사해체, 전경. 백골단 강제착출 거부, 군내 인권유린실태 규명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2년 1개월)
- 5) 기타 : 동국대

37. 최창윤 (수경)

- 1) 일시 : 91.6.7.
- 2) 소속 : 제주경찰서
- 3) 양심선언내용 : 백골단. 안기부해체, 군인. 전경의 사상표현의 자유보장, 학생운동. 노동운동탄압중지,公安통치종식과 노정권퇴진 촉구.
- 4) 현재상황 : 91.6~7월경 집유석방
- 5) 기타 : 영남대

38. 고대성 (일병)

- 1) 일시 : 91.8.12
- 2) 소속 : 육군제11사단 9연대 4대대
- 3) 양심선언내용 : 정훈교육폐지, 주한미군철폐, 남북상호감군요구, 애국병사 탄압하는 군당국의 각성촉구.
- 4) 현재상황 : 수배중(1년 10개월)
- 5) 기타 : 경원전문대

39. 이한수 (일경)

- 1) 일시 : 91.12.1.
- 2) 소속 : 천안경찰서 2610전경대
- 3) 양심선언 : 전투경찰대 해체, 쌀수입개방 저지,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철회 등 촉구.
- 4) 구속일 : 92.3.7.
- 5) 적용법규 : 군형법 (군무이탈)
- 6) 형량 : 1심-1년6월
- 7) 현재상황 : 수감중
- 8) 기타 : 충남대

40. 이재원 (일경)

- 이한수일경과 동일
- 1) 현재상황 : 수배중(1년 6개월)
- 2) 기타 : 청주대

군 민주개혁 촉구 농성

양심선언 군인 기자회견

지난 89년 2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전두환 이순자 구속 처벌' 등을 내걸고 양심선언을 한 뒤 군무이탈 등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임성호씨(27·당시 강원도 태백경찰서 소속 307전경대 일경) 등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8명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 5가 기

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 협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군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관련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 해제 및 군 개혁 작업을 계속 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 12·12사태와 5·18광주항쟁의 관련 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92년도>

41. 강태중 (일경)

- 1) 일시 : 92.1.15.
- 2) 소속 : 전북경찰청예하 제2308전경대 1소대
- 3) 양심선언내용 : 전경해체, 민주정부수립
- 4) 현재상황 : 수배중(1년 5개월)
- 5) 기타 : 외대 용인캠퍼스

42. 이지문 (중위)

- 1) 일시 : 92.3.22
- 2) 소속 : 9사단
- 3) 양심선언내용 : 3.24국회위원 총선거시 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
- 4) 구속일 : 92.3.24
- 5) 적용법규 : 균형법 (근무이탈) , 명예훼손죄
- 6) 형량 : 이등병강등 불명예제대
- 7) 현재상황 : 제대후 공선협에서 활동중

43. 이원섭 (일병)

- 1) 일시 : 92.3.28
- 2) 소속 : 국군 통신사령부 예하부대
- 3) 양심선언 내용 : 국군 통신사령부의 3.24총선거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한겨레신문에 편지제보
- 4) 구속일 : 92.4.10.
- 5) 적용법규 : 선거법
- 6) 현재상황 : 불기소 처리되어 잔여 복무중
- 7) 기타 : 동양공전 기계과

44. 조정희 (일병)

- 1) 일시 : 92. 9.28
- 2) 소속 : 제32사단 505여단 중구관리대대 기동중대
- 3) 양심선언 내용 : 「민족한남활동가조직」 사건이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수사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폭로
- 4) 현재상황 : 수배중(8개월)
- 5) 기타 : 한남대 87. 국문학과

<양심선언 군인·전경 현황 도표>

양심선언 현황			
년 도	군 인	전 경	년도합계
87년		1명	1명
88년	2명	4명	6명
89년	9명	10명	19명
90년	2명	3명	5명
91년	4명	5명	9명
92년	3명	1명	4명
합계	20명	24명	44명

구속자 현황	
군 인	전 경
6 명	1 명
총 7 명	

수배자 현황	
군 인	전 경
3 명	6 명
총 9 명	

<양심선언 공무원 현황>

1. 이문옥 감사관

- 1) 일시 : 1990. 5. 11.
- 2) 소속 : 감사원
- 3)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 독립
- 4) 기타 : 구속 되신후 석방되어 경실련에서 활동

2. 박동렬 동장

- 1) 일시 : 1991. 1. 5.
- 2) 소속 : 목포시 안동 동장
- 3) 양심선언 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

3. 한준수 군수

- 1) 일시 : 1992. 1. 5.
- 2) 소속 : 연기 군수
- 3) 양심선언 내용 : 3.24 총선시 부정 관권 선거 폭로 및 지방자치제 실시 주장
- 4) 기타 :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



농성 상황일지

5월 25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인권위에서 임성호 동지(27)를 비롯한 양심선언 군인, 전경 수배자 8명은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의 민주개혁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또한 기자회견후에는 짧게는 1년 남짓, 길게는 4년이 넘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상봉의 시간을 갖고 재회의 감격을 나눴으며 그간 수배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번 농성투쟁의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7일

*군경 양심선언 수배자 일동은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있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喜年)기도회'(KNCC통일위원회 주최)에 참석하여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군 민주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석진 동지의 어머니인 한예자 분과 박석민형님께서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에 연사로 참석하여 이번 농성투쟁에 대한 100만 청년학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27일부터 29일까지 한총련 출범식이 진행된 고려대에서 농성지원단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갖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5월 29일

*군경양심선언 수배자일동은 한남대, 청주대 200여 학우와 함께 농성중인 기독교 회관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투쟁의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윤한봉 동지 귀국 환영대회'에 참석하여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12.12와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5월 30일

*군경 양심선언 구속, 수배자 가족은 경희대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여 지지서명운동을 벌였다.

*군경 양심선언 수배자 일동은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인 '기아그룹 해고, 수배, 구속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기해투)동지들과 상견례를 갖고 상호 농성투쟁의 의의를 공유하고 서로의 승리를 기원해 주었다.

5월 31일

*양심선언 군경수배자들의 농성투쟁지원단은 탐골공원과 명동성당 입구에서 대국민선전전을 갖고 지지서명을 받았다.